

엔도 슈사쿠의 『오바카상』 론*

— <나의 예수>상의 출발점 —

陸根和**

目次

1. 서론
 2. 엔도문학에서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3. 작품 『오바카상』에 묘사된 ‘무상의 사랑’
 - 3.1 작품 속에 나타난 ‘오바카상’의 의미
 - 3.2 주인공 ‘오바카상’의 무상의 행위
 - 3.3 ‘오바카상’의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
 4. <나의 예수>상의 출발점으로서의 『오바카상』
 5. 결론
-

1. 서론

엔도 슈사쿠(遠藤周作:1923.3~1996.9)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톨릭작가로서 일본문단뿐만이 아닌 전 세계 가톨릭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킨 작가라 할 수 있다.

엔도는 기존의 일본문단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범신론 풍토 안에서의 일신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서양의 부성(父性)적인 예수상에 모성(母性)적인 사랑의 신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나의 예수>로서 형상화하였다. 이는 가톨릭문학세계와 성서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신학적인 논란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본 논문은 대전대학교 2007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근현대문학전공

엔도는 1947년 평론 『신들과 신과』로 문단에 등장한 후 1996년 죽기까지 40년간에 걸쳐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덴까지』 『백인·황색인』 『바다와 독약』으로 시작하여 『침묵』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총과 십자가』 『깊은 강』 등으로 이어지는 순수문학에 속하는 작품군이며, 다른 하나는 『오바카상』 『헤치마군』 『내가·버린·여자』로 이어지는 대중문학에 속하는 작품군이다.

기존의 엔도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순수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학에 속하면서도 엔도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온 <나의 예수>상에 대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오바카상』을, 타 작품들과 비교·고찰·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엔도의 대중문학연구라는 새로운 시도로서 작가의 총체적인 작품테마와 문학사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엔도문학에서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서의 순수문학은 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흥미분위의 가벼운 문장체로 쓴 대중문학에 반하여, 무거운 주제 하에 작가의 순수한 예술적 욕구를 지향하는 문예작품을 가리킨다.¹⁾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엔도의 대중문학에 속하는 작품은 흥미분위에 중점을 두고, 순수한 예술 세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총체적인 엔도문학을 고찰해볼 때 이러한 구분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엔도문학의 작품세계에서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두 영역에서 가톨릭작가로서의 일관된 테마가 탐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한 모성적인 사랑의 신에 대한 존재증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엔도문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린 가벼운 문장체나 표면적인 주제에 상관없이 작품의 근저에 흐르는 테마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엔도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대표적인 순수문학작품들의 테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엔도의 처녀작인 『아덴까지』¹⁾는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백인들

1) 이희승 편저(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886, p.2200

1) 『아덴까지』, 「三田文学」, 1954년 11월 게재.

을 위한 기독교'에 대한 반론과 함께 유일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범신론 세계 속의 황색인으로서의 자각이 짝트고 있다.

『바다와 독약』²⁾은 백인세계에 대한 열등감과 거리감 속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될 생체해부라는 사건을 통하여 일본인들의 죄의식과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엔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침묵』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엄한 부정적 예수가 아닌 무한한 모성적인 사랑의 신과 만나게 된다. 이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와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 작가 엔도의 성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알 수 있는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³⁾, 『침묵』에서 만나게 된 모성적인 사랑의 신에 대한 존재증명을 성서의 해석을 통하여 시도한 작품이다. 그러나 엔도의 신학적인 역량과 학문적 세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본 작품에 소설가로서의 창작이라는 문학적 세계가 혼재되어 있어 진정한 성서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깊은 강』⁴⁾은 엔도의 마지막 장편소설로서 그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온 테마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작품에서의 신의 모습은 인간내면의 세계에 살아 숨쉬며 인간에게 늘 작용하는 존재로, 신과 인간의 융화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하겠다. 비평가들은 작가가 결국에는 황색인으로서의 범신론 세계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으나 모든 종교의 형태를 떠나 인간적인 사랑을 지닌 모성적인 신의 모습인 <나의 예수>를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중문학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의 테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카상』⁵⁾은 엔도의 첫 대중소설로서 첫 신문연재 소설이기도 하다. 본 작품의 주인공 가스톤은 말과 같이 긴 얼굴에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현대인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순진무구한 인물로 등장한다. 바보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행동과 사고 속에서 그는 어찌면 일본에 살며시 재림한 사랑의 신 예수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한다.

『헤치마군』⁶⁾은 익살맞은 유머 소설로서 『오바카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2) 『바다와 독약』, 「文学界」, 1957년 6·8·10월 게재.

3) 『예수의 생애』, 1968년 봄호부터 1973년 6월호에 걸쳐 [성서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7회 게재.

『그리스도의 탄생』, 「新朝」, 1977년 5월부터 1978년 5월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1978년 9월 새 제목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뀌어 新潮社에서 간행.

4) 『깊은 강』, 講談社, 1993년 6월 간행

5) 『오바카상』, 朝日新聞, 1959년 3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연재됨.

6) 『헤치마군』, 지방지, 1960년 5월부터 11월까지 연재. 1961년 5월 新潮社에서 간행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헤치마란 본디 수세미라는 뜻으로 무언가 얼빠진 얼굴이며, 『오바카상』의 주인공처럼 순진하고 선량하나 좀 더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남을 의심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면서도 언제나 바보같은 웃음을 띠며 훌훌 털고 일어서는 주인공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받는, 더 나아가 신에 다가선 인간상인 동시에 예수상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버린·여자』⁷⁾는, 여자 주인공 모리타 미쓰의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신의 섬세한 손길과 평범한 인간 속에 신이 존재함을 증명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남자 주인공인 요시오카 쓰토무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눈을 통하여, 평범한 여자 주인공 모리타 미쓰를 성녀로까지 끌어올려,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엔도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은, 표현문체나 대상에 따라 독자들이 느끼는 작품의 무게감은 다를 수 있으나 주제는 양 영역에서 일관되게 사랑의 신의 모습을 추구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 『오바카상』에 묘사된 ‘무상의 사랑’

본장에서는 『오바카상』⁸⁾의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고찰을 좀 더 심도있게 시도해 보고자 한다.

작품 『오바카상』은 엔도에게 있어서 최초의 신문소설이며 일반대중을 독자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중소설이라 할 수 있다. 1959년 3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사히(朝日)신문 석간에 총 142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이후 주오고론(中央公論)사에서 1959년 10월 단행본으로 간행, 1960년 8월 지쿠마쇼보(筑摩書房)간행 「신예문학총서 6, 『엔도슈사쿠 집』」에 수록, 1962년 8월 가도카와(角川)문고, 1974년 1월 주오(中央)문고 등에서 간행되었다.

『오바카상』은 목차나 번호 매김 없이 중간 중간에 소제목이 붙어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제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작품내용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총13장의 목차를 정리해 보았다.

7) 『내가·버린·여자』, 「主婦の友」, 1963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12회 연재됨. 1964년 3월 文芸春秋新社에서 간행됨.

8) 『오바카상』에 대한 텍스트로서는 角川文庫 1970년 5월 30일 간행을 사용함.

장	제목	쪽수	장	제목	쪽수
1	나폴레옹의 자손	3	8	신뢰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	185
2	주인공 등장	22	9	별이여 빛나라	207
3	?	46	10	북쪽의 나라	235
4	외톨이	81	11	지도	253
5	동양의 은둔자	104	12	어두운 늪	273
6	산골짜기의 밤	127	13	백로	293
7	덧	148	×		

*주인공의 이미지→ 현실세계의 부적응→인간에 대한 신뢰→어둠 속의 빛
→희망

3.1 작품 속에 나타난 ‘오바카상’의 의미

작품 『오바카상』을 우리말로 직역하여 ‘바보’로 해석하는 데는 작품의 메시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어 고유명사처럼 원어 그대로 ‘오바카상’으로 번역했다.

작품 속에서 ‘오바카상’으로 칭해지는 주인공 가스톤 보나파르토는, 나폴레옹의 후손이기는 하나 나폴레옹의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인, 경충한 키에 비실비실하며, 긴 말상의 얼굴에 바보 같은 웃음을 헤뜨게 흘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랑스배인 베트남호의 4등 선객으로 긴자루 배낭 하나를 달랑 들고 펜팔 친구인 다카모리에게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낸 후 일본으로 건너온다.

다카모리와 그의 여동생인 도모에는 기대에 너무도 반하는 가스톤의 인상과 행동을 보고 실망과 함께 의심과 경계를 한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의심없고 헌신적인 가스톤의 순수한 사랑에 그가 둔하고 인간으로서 부족한 ‘바보’가 아닌 인간과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오바카상’임을 자각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도모에의 가스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

말이 불쑥 일어나, 이쪽을 향했을 때, 도모에의 목구멍으로 넘어온 것은 먼저 이 말이었다. (p.43)

(아무리 외국인이라도—바보, 바보야. 정말로 이 남자, 바보가 아닐까) (p.51)

혹시 바보스런 얼굴을 하고...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p.57)

(남자 주제에 울다니…패기가 너무 없어. 이런 큰 덩치에 맞고만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머니가 불구의 자녀에게 갖는, 그 애절함과 도 닦은 기분을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품게 되었다.(p.79)

(겉쟁이이고 패기도 없지만 이외로 선량한 마음 지니고 있네, 이 사람)
처음으로 도모에는 가스톤의 좋은 점을 느낀듯하여 새삼스럽게 그를 다시 보았다.(p.80)

「가스톤 씨를 알 수가 없어……」
이제까지 쓴 웃음과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가스톤이 도모에게 갑자기, 이상한 힘을 지닌 남자처럼 비쳐졌다. 여자인 자신이 당겨도 밀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한 남성처럼 보였다. 남자라는 존재를 내심 경멸해 온 도모에게는, 이것은 숙녀가 된 후 첫 경험이었다.(p.232)

(바보가 아니야……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오바카상이야)
처음으로 도모에는 인생 속에 바보와 오바카상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수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고 믿고, 속아도, 배반당해도 그 신뢰나 애정의 등불을 계속 지켜가는 인간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바보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야……오바카상이야. 인생에 자신이 켜놓은 작은 불빛을,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오바카상이야. (pp.234~235)

위와 같이 가스톤에 대한 도모에의 인식변화는 바보같지만 한탄 한 남자가 평범함을 넘어 서서히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추앙받는 성자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엔도가 추구하는 <나의 예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가스톤에 대한 도모에의 인식변화는 『오바카상』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엔도는 ‘오바카상’의 의미에 대하여 신문에 연재하기 전에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슬프지만, 밝은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제가 평소 동경하는 인물입니다. 그 주인공을 작자는 굳이 오바카상—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바카상」의 의미는 바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개구쟁이에게 「오바카상」 그렇게 속삭일 때의 그 따뜻한 애정을 작자는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품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1959.3.23)

또한 엔도가 『성서 속의 여성들』⁹⁾에서도 ‘오바카상’의 모델에 대하여 밝히

9) 『성서 속의 여성들』, 『婦人畫報』1958.4~199.5. 엔도가 소설가로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성서연구

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오바카상』이라는 작품에서, 베르나노스의 『시골사제의 일기』나 몰락의 『새끼양』에 그려진 주인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다. 이 소설이 나를 더욱 매료시키는 점은 주인공인 시골 사제가 우리들과 같은 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과 같이 약하고 평범한 남자가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인생의 숭고한 부분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엔도는 「내 소설의 모델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도 작품 『오바카상』의 주인공 가스톤의 실제 모델은 조르쥬 네랑신부(1920년 프랑스 리옹출신)라고 밝히고 있다. 엔도가 리옹 유학시 돌봐준 신부로서, 이후 일본으로 건너와 선교를 했으며 엔도의 집에 보름정도 머물기도 했다. 소설 속의 가스톤과 실제의 네랑 신부는, 외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흔들림 없는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¹⁰⁾

‘오바카상’으로 등장하는 가스톤은, 겁쟁이이고 패기도 없으며,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아픈 일에 턱없이 약하고 울보 남자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애정을 갖춘, 엔도가 추구하는 이상형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다.

3.2 주인공 ‘오바카상’의 무상(無償)의 행위

‘인간을 믿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걸겠다’는 작품 속의 주인공 가스톤은 ‘마치 유아와 같은 정신연령’의 소유자이며 포교신학교에 3번이나 낙제한 인물이기도 하다.¹¹⁾ 그래도 인간에 대한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여 그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된다.

작품에서 가스톤의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무상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 대한 첫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가을 일기」에서 발췌함.

10) 네랑신부는 東京 新宿의 동쪽 출구로 나가면 [에포페]라는 자그마한 스텍을 운영했음. 신부가 왜 술집을 운영하냐는 질문에 일본인은 너무 수동적이고 수줍어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에포페’란 ‘여호야’라는 뜻이며 필자가 직접 만난 네랑신부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동그란 분이였다.

『遠藤周作文学全集』第五卷 長篇小説V, 新潮社, 1999년 9월, p.338

11) 가스톤이 다카모리 집안에 남겨 놓은 배낭 속의 노트에 다음과 같은 문귀가 적혀 있다. ‘포교 신학교에 3번이나 낙제한 머리가 나쁜 나지만…역시 일본에 가고 싶다는 기분에는 변화가 없다’ (『오바카상』, p.309)

첫째: 길거리 늙은 개를 통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애정
 둘째: 신주쿠의 모텔에서 창부를 의심 없이 도망치게 한 일
 셋째: 살인청부업자 <엔도>¹²⁾를 통한 한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
 위 3가지 행위들에 대하여 가스톤의 심성을 가장 잘 나타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인간도 의심하지 말자. 믿자. 속임을 당해도 믿자— 이것이 일본에서 그가 완수해 내려는 오로지 하나의 일이었다. 의혹이 너무도 지나치게 많은 이 세계, 서로 상대의 속셈을 떠보며, 결코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문명이나 지식이라는 것을, 가스톤은 먼 바다의 저편에 버리고 왔다. 지금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을 믿는 일— 어리석은 가스톤이 자신에게 부과한 수행의 첫 내딛음이 이것이었다.(p.109)

(저 별과 같은 수만권의 불행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지상에 흩어져 있다.……) 가스톤은 그러한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아둔하면 아둔한 대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p.122)

위와 같은 가스톤의 심성을 바탕으로 무상의 행위 세 가지에 대한 문장을 본문에서 발췌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가스톤의 길거리에 버려진 추하고 늙은 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애정을 살펴볼 수 있다. 가스톤은 요코하마에 도착한 다음날 도쿄 구경을 나섰는데 도쿄타워나 변화가인 긴자 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절 경내에서 아이들과 비둘기와 지내다 돌아오는 길에 버려진 늙은 개를 데리고 와 자신의 육신처럼 돌보기 시작한다.

이후 가스톤은 ‘좀 더 많은 일본인을 알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다카모리의 집을 나오게 된다. 외톨이가 된 그는 자신을 따라오는 가련한 개의 모습과 이제까지 실패만 하여 타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자신의 비참했던 삶을 겹쳐 보게 된다. 가스톤을 올려다보는 늙고 추한 개를 보며 그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 눈이 너무나도 슬퍼보여, 자신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듯하여……가스톤은 허리를 구부려, 큰 손으로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늙은 개의 슬픈 눈을 보고 있자니, 말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알 것만 같다……(p.87)

12) 작가 엔도 슈사쿠와 같은 이름으로 작품 속의 살인청부업자 <엔도>라는 등장인물이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작중인물 엔도에게는 부호<>로 표시를 하였다.

가스톤은 이 집없는 늙은 개도 자신처럼 따돌림 당하고 쫓기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엾기 그지없어 데리고 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늙은 개를 버리지 않았듯, 자신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 또한 버리지 않는다.

이 지상의 인간이 모두 나폴레옹처럼 영리하고, 강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지상이 영리하고 강한 사람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나 이 늙은 개처럼—

약하고, 슬픈 자도 무언가 보람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지는 않을까……

저 하늘의 별 속에도 필시 자신들과 같은 별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날카로운 빛을 발하는 대신에 약하디 약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빛나는 별도 있음에 틀림없다. 패기 없는 자신이지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런 별의 아름다움의 한 조각이라도 차지할 수는 없을까……(pp.87~88)

가스톤이 갑자기 살인청부업자 <엔도>에게 납치당해 있는 동안, 이 늙은 개는 집없는 개들을 잡아다 처리하는 구청 소속반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가까스로 풀려난 가스톤의 자신의 안위보다는 늙은 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애태우는 모습에서 우리 인간만이 아닌 만물에 대한 한없는 사랑까지도 느끼게 한다.

둘째, 신주쿠의 모텔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창부를 침대위에 소변을 누었다고 착각하여 도망치게 한 일은, 다카모리의 집을 나와 하룻밤 숙소로 정한 시부야의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장면에서는 존재에 대한 귀천이나 외양을 넘어선 가스톤의 인간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불쌍하게도 잠자리에 실례를 했음에 틀림없어. 여자로서 가장 부끄럽고 딱한 일……어렸을 때 같은 잘못을 해서 형제들로부터 경멸받은 적이 있는 가스톤에게는, 그녀의 울상지은 얼굴과 절망적인 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로…… 왜 그 여자를 도망치게 했나…… 외국양반」

「오쥘, 당신도 하지요. 오쥘 지린 것을 화내는 건, 당신, 틀렸어」(p.97)

도둑질한 창부를 도망치게 한 일로 숙소에서 쫓겨난 가스톤은,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가스톤은 그녀에 대한 분한 마음도 있었으나 상대에 대한 미움보다도, 인간에 대해 미워할 수 없는 천성과 인간을 믿겠다는 신념으로 인해 오히려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저 봐요, 오빠…… 함께 놀아요」(생략)

마음 약한 가스톤은 언제나 타인을 미워할 수 없는 남자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자신을 못살게 구는 또래의 악동들에게, 어떤 심한 일을 당해도 상대를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이다. 타인을 미워한다는 일은, 그에게는 가장 싫은 일이었다. 그보다도 바로 상대의 선의나 우정을 믿자, 믿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 (pp.100~101)

가스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창부들을 통하여, 선악의 존재와 타인에 대한 행동도 상대적인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도 심해지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인간의 순수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가스톤의 모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심성이 하루하루 각박하게 살아가는 창부들의 마음까지도 열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살인청부업자 <엔도>를 통한 한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본 작품의 테마를 가장 심도 있게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엔도>는 인텔리 야쿠자로서 전쟁 중 민간인 살해혐의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형의 복수에 가스톤을 이용하려 한다. 천애의 고아인 <엔도>는 복수의 화신으로서 인간을 불신하는 냉혈인간으로 묘사된다.

「나 말이야, 증오 이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남자야」
「착한 척 하고 있네. 신의 따위 지금 세상에서 제대로 통할 줄 알아. 애정이나 신되 따위는 모두 편리하니까 사용하고 있는 말일뿐이야. ……나는 이미, 그런 것 믿지 않아」 (p.198)

가스톤은, 세상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빠뜨어진 <엔도>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내 친구’ ‘당신을 좋아해’라며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녹여주려고 애를 쓴다.

「안돼요, 엔도씨, 안돼… 당신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살해당한 일, 괴롭겠지요. 그 일 이해해요. 그러나 안돼. 인간을 미워하는, 원망하는……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닌가요?」 (p.167)

(내가 버리면……엔도씨……불쌍해……) (p.178)

「엔도씨가 간다면, 나도 함께 가요」
「엔도씨, 외톨이. 외톨이이기 때문에 친구, 필요해요」
「나 함께 가요」
「이건, 내 결심」
「당신을 버리지 않는 일……따라 가는 것」 (pp.196~197, 발췌)

가스톤이 폐결핵으로 선혈을 토하는 <엔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품고 그저 뒤를 따라 가는 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엔도>가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가나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가스톤이 <엔도>의 권총에서 탄알을 빼낸 일은 <엔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스톤의 능동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그리고 야마가타현의 늪지에서 고바야시라는 또 다른 복수의 대상에게 오히려 삽으로 피범벅이 되도록 맞아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엔도>에게 혼심을 다해 끊임없이 인간적인 믿음을 심어주려는 가스톤의 모습은 작가 엔도가 추구하는 사랑의 동반자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가스톤의 인간에 대한 ‘무상의 사랑’을 접하면서 각박한 우리의 삶에서 어찌면 하찮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된다.

3.3 ‘오바카상’의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

본 절에서는 다음 두 항목으로 나누어 작품의 주요 대목을 발췌·분석하여 작품에서의 메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 인간성을 잃은 현대 사회에 대한 경각심

둘째 : 가스톤의 이미지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

첫째, 인간성을 잃은 현대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내용을 작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스톤이 신주쿠에서 불량배들을 만나 매 맞는 장면으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가스톤을 도우려는 사람은 커녕 오히려 마른 침을 삼키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비정한 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모두, 친구」

마치 덩치 큰 소가 주인에게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뚝뚝뚝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듯했다. 둔한 소라도 뜻하지 않는 괴롭힘을 당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가스톤의 말과 같이 긴 얼굴에는 소의 어두운 슬픔이 가득 넘쳤다.(p.77)

구경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얼굴을 돌린 채 흠뻑 젖어가기 시작했다. (생략)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뒷맛이 개름칙한 굴욕감이 마음에 가득 찼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인간성에 대한 쓸쓸함이라고도 후회스러움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가슴이 갑갑했다.(p.78)

타인에 대한 고통을 오히려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흥밋거리로만 여기는 비정한 현대인들이기는 하나 ‘뒷맛이 깨름직한 굴욕감’과 ‘뒤편 할 수 없는 가슴 답답함’에서 미미하나마 인간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다음문장들은 현대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인 가난함과 피폐함을 지닌 우리의 삶을 토로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상에는 미움과 싸움밖에 없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를 미워하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의심하는—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딘가 멀리 사라져 버렸다. (p.179)

인간의 생활……부모나 형제가 있는 즐거움. 고독한지 앓다는 행복감……가스톤은 그에 비해 완전한 외톨이라는 사실을 견디고 있었다. (p.236)

죽음의 냄새는 이런 작은 동물에서만이 아닌, 지금의 세상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떠돌고 있다. (p.237)

평범한 하루가 축복받은 하루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서 범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타인과 타국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하여 정신적 세계는 점점 각박하고 살벌해 저가는 오늘날의 사회는 어디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지 아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 표현하듯, 각 자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 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나라와 나라끼리든 세계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키는 현 세대에 대해, 작가 엔도는 독초를 품은 죽음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작품을 통해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은 등장인물 작품의 중반부에서 두 등장인물 다카모리와 살인청부업자 <엔도>의 인식을 통하여 가스톤의 이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말이야, 도모에, 인간은 모두가 아름답고 강한 존재라고만은 할 수 없어. 천생이 겁쟁이인 사람도 있어. 약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 걸핏하면 훌쩍거리는 마음의 소유자도 있어…… 그렇지만 말이야, 그런 약한, 겁쟁이 남자가 자신의 약함을 깊어지고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 내가 가스톤을 좋아하는 것은 말이야 …… 그가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좋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야. 나약하고 겁쟁인 주제에…… 그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야.

(p.243, 다카모리)

다카모리는 갑자기 산 정상 근처를 가스톤이 천천히 오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자를 흔들며…… 말상에, 멍청한 겁쟁이 같은 웃음을 띠우며,

「다카모리씨, 나 갑니다」

「어디로……」

「어디라도……인간이 있는 곳, 어디라도……」 (중간생략)

「아, 백로」

「가스씨¹³⁾, 안녕」 다카모리는 그 백로를 향하여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pp.299~300)

위와 같은 다카모리의 가스톤에 대한 백로의 이미지를 <엔도>의 독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비정하기만 했던 <엔도>에게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렴풋이 눈을 뜨자 하늘의 일각이 파랗게 개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파란 하늘을 향하여, 한 마리의 백로가 새하얀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 사라져 가는 것이 희미한 눈에 비쳤다.(p.298)

다음은 본 작품에서 다카모리의 가스톤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를 정리한 것으로서, 작가 엔도가 『오바카상』을 통하여 전하려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이윽고 정상까지 겨우 도착한 가스톤은 자랑스러운 듯 다카모리를 돌아본다. 기개 없고, 겁쟁이며, 모든 일에 서툴기 짝이 없는 이 몸집 큰 남자가 산 정상 끝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서 가스톤은 양손을 들어 그것을 새가 날갯짓을 하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그의 다리는 정상에서 천천히 떠나 두둥실, 가벼운 풍선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가스상’ 큰 소리 다카모리는 새파란 하늘로 서서히 작아져가는 가스톤을 부른다. 그러나 계속 모자를 흔들면서, 상대는 작은 한 점이 되어, 감청색하늘로 빨려들어 갔다.(pp.300~301, 내용정리)

(가스톤은 살아 있어. 그는 또다시 파란 먼 나라로부터, 이 인간의 슬픔을 잃어지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나타날 거야) (p.309, 본 작품 마지막 문장)

위와 같이 다카모리와 <엔도>의 의식변화를 살펴보면 가스톤의 이미지가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로로 귀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탁한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 가스톤의 바보같은 모습은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한 시점에서는 신성까지도 갖춘 성자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13) 가스톤의 애칭으로 다카모리와 도모에가 붙여준 것임.

다.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가스톤의 말에서 작가 엔도가 일생을 걸고 탐구해온 동반자 예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다.

4.<나의 예수>상의 출발점으로서의 『오바카상』

본 장에서는 엔도의 다음 네 작품 속의 ‘오바카상’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작품 『오바카상』에 대한 문학사적 위치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 『헤치마군』의 도요토미 후나키치

둘째 : 『내가·버린·여자』의 모리타 미쓰

셋째 : 『침묵』의 로도리고

넷째 : 『깊은 강』의 오쓰

첫째 : 『헤치마군』의 헤치마로 불리는 도요토미 후나키치는, 『오바카상』의 가스톤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말상이며 연약하고 겁쟁이면서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마음속까지 선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가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사람을 전혀 의심할 줄 몰라 주위 사람들로 부터 경멸받으며 이용만 당하다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러나 천성이 낙천적인 그는 계속 실패만 하는 삶에서도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늘 타인에 대한 헌신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바카상』이 등장인물인 살인청부업자 <엔도>의 인간성 회복을 이야기 했다면 『헤치마군』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필사적인 사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구마사카의 인간성 회복에 있다고 하겠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인이 돼서까지 후나키치를 이용만 하던 구마사카였지만 그가 자신의 꿈이 다 깨졌을 때 어수룩하기 만한 친구에게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약착같이 남의 돈만 갈취하던 구마사카는 자기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후나키치에게 나누어 준다.

두 작품 모두 평범하다 못해 바보같은 일상 속의 주인공들이 최악의 삶을 살고 있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느 사이엔가 범용함에서 훨씬 벗어난 숭고한 삶의 높은 경지에 다다라 있음에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 『내가·버린·여자』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 한 명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레이터로 등장하는 요시오카 쓰토무이며, 다른 한 명은 엔도가 추구하는 테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모리타 미쓰이다.

작중인물 요시오카는, 스스로가 ‘보통 사람 이상으로 뱃속이 검고, 교활한 남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세상의 남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요시오카는 모리타를 만나 처음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로 유인하고, 성욕을 채운 후에는 헌신짝처럼 미련없이 버려버린다. 두 번째로 그녀를 찾아간 것은, 사장 조카와의 결혼을 앞두고 또다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가 취한 세 번째는 앞서의 비열한 행동과는 달리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녀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함이다. 무엇이 요시오카를 변하게 했는가에 대한 답이 『오바카상』의 <엔도>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모리타는, 작품의 시작에서는 ‘도쿄의 변두리의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의 소유자였으나 마지막에는 요시오카로 하여금 ‘나는 지금 그녀를 성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게 할 정도로 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

모리타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이용한 요시오카를 포함하여 가난한 자, 나병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환자들에 이르기까지 타인들에 대한 애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톨이인 그녀는, 힘든 짐을 지고 삶아가는 외로운 영혼들에게 따뜻한 빛을 안겨주는 존재로서, 작가 엔도는 모리타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신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하겠다.

셋째 : 『침묵』의 주인공 로도리고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으로 잠입하여 포교활동을 하다 결국에는 배교를 하게 된 사제이다. 그의 험난한 여정을 통하여 처음에는 힘에 넘치고 능력있고 별하는 엄부로서의 신의 모습이 점차 인간의 약함과 슬픔에 위로와 용서를 해주는 모성적인 사랑의 신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 이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닌 <나의 예수>로서의 그리스도이며, 본 작품을 통하여 엔도는 독자적인 자신의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하여 성서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배신을 하듯, 『침묵』의 기치지로도 참회와 배신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인물이다. 로도리고는 기교한 사제로서의 낙인이 찍힌 후에 고해를 하러 찾아온 기치지로에게 경멸보다도 동정을 느끼게 된다. 기치지로의 반론인 ‘성화를 밟은 내가 기뻐서 밟았다고 생각해? 밟은 내 발은 아파, 아프단 말이야. 나를 약자로 태어나게 해 놓고, 강한 자의 흉내를 내라고 제우스님은 말씀하셔. 그건 억지야¹⁴⁾’ 라는 문장은, 『오바카상』에서의 ‘인간은 모두가 아름답고

강한 존재라고만은 할 수 없어. 천생이 겁쟁이인 사람도 있어. 약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 걸핏하면 훌쩍거리는 마음의 소유자도 있어'¹⁵⁾와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에서 묘사된 사랑의 신은 『오바카상』에서의 가스톤의 이미지와 다를 바 없는 신상(神像)이라 하겠다.

넷째 : 『깊은 강』¹⁶⁾의 주인공 오쓰는, 『오바카상』의 가스톤처럼 외모에서 위엄도 고귀함도 느껴지지 않고 학업이나 연예를 포함한 인간관계 등에서도 부딪치는 일마다 실패만 하는 무능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오쓰가 최선을 다한 신학교에서조차 ‘신은 기독교에도 힌두교에도 불교 안에도 살아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이단적인 사상으로 쫓겨난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찾아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홀로 미사를 올리는 외톨이이다.

오쓰는 ‘아무리 추한 인간도 더러운 인간도 거부하지 않는 갠지즈강처럼, 다마네기라는 사랑의 강’의 삶을 갠지즈강가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 예수의 사랑이 오쓰에게 전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오쓰도 가스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실패만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으나 마지막에는 앞의 작품들처럼 신성을 갖춘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왜 작품속의 평범했던 주인공들 모두가 궁극에는 신성을 갖춘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인식되는가? 이것은 작가 엔도가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필자로서는 주인공들이 특별하고 훌륭한 행위나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은 아니며, 물질만능의 현실에서 약함으로 치부되기 쉬운 사랑의 행위를 일생을 통하여 변함없이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전에 그를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의 사후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온 것은 기적을 행하는 강인하고 전능한 예수의 모습에서가 아닌, 무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기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처럼 『오바카상』 이후의 모든 작품에서, 작가가 그려낸 신의 이미지는 한결같이 『오바카상』의 주인공 가스톤의 이미지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침묵』의 텍스트는 新潮現代文學41 新潮社 1979년 9월 간행을 사용함. p.90

15) 전계서 『오바카상』 p.243

16) 『깊은 강』의 텍스트는 講談社 1993년 6월 간행을 사용함.

17) 본 작품에서 ‘다마네기’는 ‘예수’를 의미하며, 엔도는 부활의 의미를 전생이라는 불교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의 사상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작용하고 활동한다’는 의미로 표현했다.

본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작품 『사해의 주변』 『그리스도의 탄생』 『사무라이』 등에서도 예외없이 무력해 보이면서도 끊임없는 사랑의 동반자적인 신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음을 볼 때, 『오바카상』은 엔도가 말하는 <나의 예수>에 대한 출발을 고한 작품이라 하겠다.

5. 결론

2000년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명작이라고 칭해지는 ‘성서’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의 끝없는 신의와 사랑에도 인간이 지닌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현세의 삶속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배신 행위들이 그 안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작가 엔도는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죄 많은 인간들 곁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쏟고 있는 모성적인 동반자 예수의 모습을 추구해 왔다. 그의 ‘인간의 죄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포용적인 자세는 엔도문학의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엔도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순박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바보’같은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처 받은 인간들 곁에서 끊임없이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병이나 가난이 아닌 누구와도 믿음으로 소통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할 때, 엔도가 그린 주인공들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동반자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모성적인 사랑의 동반자인 <나의 예수>의 모습은, 맨 처음 『오바카상』의 주인공 가스톤의 ‘부족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¹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발표된 작품들의 주인공인 『헤치마군』의 후나키치, 『내가·버린·여자』의 모리타 미쓰, 『침묵』의 로도리고, 『깊은 강』의 오쓰에게도 가스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엔도문학은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두 영역에서 모두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라는 테마가 작품의 근거를 이루고 있으며, 『오바카상』은 대중문학에 속하면서도 엔도

18) 문장 속 주요 대사 : ‘속임을 당해도 믿자’ ‘나와 당신은 친구’ ‘당신을 버리지 않는 것…… 따라가는 것’

의 <나의 예수>상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낸 최초의 소설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 이희승 편저(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886, p.2200
- 필자논문(2000),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深い河)』論—종교다원주의적 신앙관을 중심으로」, 韓國日本文化學會 日本文化學報, 第9輯, pp.351~352
- 필자논문(2002), 「엔도 슈사쿠의 『아덴까지(アデンまで)』論—기독교문학관을 중심으로」, 韓國日語日文學會 日語日文學研究, 第43輯, p.268
- 필자논문(2005), 「遠藤周作의 『わたしが・棄てた・女』論—<悲しみへの連帯感を中心に>」, 韓國日本文化學會 日本文化學報, 第25輯, pp.137~138
- 武田友寿(1971), 『遠藤周作の世界』, 講談社, pp.180~181
- 遠藤周作(1979), 『沈黙』, 新潮現代文学41, 新潮社, p.90
- 遠藤周作(1984), 『聖書のなかの女性たち』, 講談社, pp.122~139
- 広石廉二(1991),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 pp.90~95
- 遠藤周作(1993), 『深い河』, 講談社, p.298
- 遠藤周作(1999), 『遠藤周作文学全集』第五卷 長篇小説V, 新潮社, p.338
- 笠井秋生(2000), 『作品論 遠藤周作』, 双文社, pp.94~95

要 旨

私たちは、神の限りない信頼と愛に導かれている『聖書』の中の登場人物を通して、人間は信頼の対象ではなく、愛の対象であるということに気が付く。それは人間には弱さと限界があるため、現世を生きる中で行われるあらゆる悪事や背信行為が聖書の中に赤裸々に描き出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

カトリック作家遠藤周作は、一生を通じ、罪深い人間の傍で絶え間なく愛を注いでいるイエス像を探し求めてきた。彼は人間の罪の中にも救済の可能性があると包容的な姿勢をとっている。これは遠藤文学の大きな特徴の一つであるといえる。

遠藤の作品の中に登場する主人公たちは、純文学と大衆文学を問わず、一様に純粹で現実的ではない‘おバカさん’のような人物ばかりである。しかし、彼らはいくら人から蔑まれても裏切られても人を疑おうともせず、傷つけられている人間のそばで共に痛み、慰めてくれる母のような存在である。

こうした愛の同伴者である母性的なく私のイエス像は、初めて『おバカさん』の主人公ガストンの‘間拔けたような感じの臆病な男が自分の弱さを背負いながら、最善をつくして献身的に愛を施す姿勢’から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以後発表した作品の主人公『へチマくん』の鮎吉、『私が・棄てた・女』の森田ミツ、『沈黙』のロドリゴ、『深い河』の大津にもガストンのイメージが投影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

以上のように遠藤文学は、純文学と大衆文学の両領域でく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とく日本人にとっての神の存在というテーマが根底をなしており、『おバカさん』という作品は、大衆文学に属しながらも遠藤のく私のイエス像のイメージを具体的に描き出した最初の小説として文学史的に意義のある作品であるといえる。

キーワード：私のイエス、おバカさん、バカ、同伴者、純文学、大衆文学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6-440-2257
e-mail : yookgh@dju.kr